

한라시론



김양훈 프리랜서 작가

'이천오년 오월 삼십일, 제주의 봄바다는 햇빛이 반, 물고기 비늘 같은 바람은 소금기를 힘차게 내 몸에 끼었으며, 이제부터 네 삶은 덤이라고.' 위 구절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이 쓴 시의 제목이다. 이토록 긴 제목에 달린 시의 내용은 달랑 두 구절이다. '어린 새가 날아가는 걸 보았다/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작별하지 않는다

렇다, 한강이나 되는 시인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주의 봄바다를 워낙 좋아하는 나는, 이 시를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돈오(頓悟)의 순간이라도 기대하는 것처럼, 나는 시를 통째로 뚫어지라 쳐다보다가 몇 번이나 곱씹어다 봤다. 제주의 봄바다는 주인공에 딱처운 절망과 슬픔을 햇빛과 바람으로 씻어줬다. 하여 주인공은 새로운 삶의 각오와 함께 생명의 덤을 얻는다. 그런데 날아가는 어린 새와 마르지 않은 눈물? 농친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는 찝찝함이 남는다. 이러한 게 다 '시적 산문'이라는 그의 소설을 온전히 읽고 싶어서였다.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습니다"라 했다. 이는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한 매우 정확한 평가였다. 그리고 노벨문학상 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긴 시간 그의 작품들을 얼마나 꼼꼼히 읽고 깊이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내가 만났던 사람들, 특히 제주 출향인들 가운데 '작별하지 않는다'를 단숨에 독파한 이는 거의 없었고 중도에 읽기를 포기한 이도 몇 있었다.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야기라서 읽기 어렵다'라든지, '맥락이 없어 읽기 불편하다'라는 것이었다.

다. 문학을 통해 제주4·3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설립 취지다. 지난달 정기모임 과정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다시 읽기'였다. 세 시간 동안 각자 독후감을 발표한 후 열린 토론회가 있었다. 소설 속 시적 은유를 찾아내는 집단지성이 놀라웠다. 혼자 끙끙대던 몇 가지 궁금증을 이해하게 됐고 어떤 부문에선 전문을 느끼기도 했다. 마저 이해할 때까지 여섯 번은 읽어볼 생각이라는 어느 회원의 각오도 있었다. 동짓달 긴긴밤이다. 오붓하게 한데 모여 차라도 마시며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독후감을 나누기에 딱 맞는 계절이다. 한강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지극한 사랑'이 무엇인지 머리 맞대고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인선이 경하에게 독백처럼 해주던 말이다.

사설

한밤 계엄령 공포, 윤 대통령은 책임져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당시 전두환 당시 신군부 이후 44년 만이다. 다행히 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여만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의 단대없는 계엄 선포로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중부 세력을 적절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라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적절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

편집국 25시

계엄이 남긴 책임



김채현 행정사회부 기자

"세상이 미처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이 시대에 계엄령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간밤 사이 이뤄진 사태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 도민들은 이와 같은 대답을 쏟아냈다. 동시에 대통령을 향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국민들은 밤잠을 설쳤고, 각 정당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들 때문에 담장까지 넘었다.

4일 오전 1시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령이 2시간 만에 사실상 힘을 잃게 된 것이다. 오전 4시26분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 해제를 선포했다. 국민들을 혼순간에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상 초유의 사태는 그렇게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한밤중에 전 세계는 들쭉였고, 국민들은 황당해했다. 그 후폭풍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정치권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계엄령 사태를 비난하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들 또한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6시간 사태에 대해 국민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뉴스-in

책가방 선물로 '꿈' 응원한다

제주시 예비 중학생 지원 "계엄 해제, 학사 정상화" ○...제주시는 12세 이하 취약 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 아동 중에서 중학교 입학할 앞둔 예비 중학생 15명에게 책가방을 지원. 4일 제주시에서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제주시나눔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가 종결되는 예비 중학생들의 새로운 학교생활을 응원하고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 제주시는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통해 책가방을 구입했는데 오는 13일까지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전달 예정. 전선희기자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4일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4일 제주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는 정상적인 업무 및 학사 운영이 진행. 제주도교육청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실·국장 및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을 비상소집해 교육감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도교육청 조치사항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조정 여부 등을 논의한 뒤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안내하며 보호자 등의 문의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도 주문. 이 자리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오은지기자

돌봄 조력자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돼야

제주도 내 영유아의 돌봄을 도와 주는 사람은 대부분 할머니였다. 다만 가구의 71.4%는 조력자에 대해 드리고 있는 대가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가족연구원은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 역할의 균형 있는 분배와 비영유아 돌봄 조력자 현황과 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300 가구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 조력자가 있는 가구는 52.7%였다. 이 중 90%가 주요 조력자로 조부모를 꼽았고, 할머니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사실상 할머니 손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 조력자가 있는 가구의 44.3%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돌봄의 대가를 드리고 있었다. 월평균 30만8000원 정도였다. 다만 가구의 71.4%는 조력자에게 드리고 있는 대가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가족연구원은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 역할의 균형 있는 분배와 비영유아 돌봄 조력자 현황과 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확인됐듯이 영유아 돌봄은 가족에 의지해야만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력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과 보상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저출생·인구소멸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82-3644 010-4690-3636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119-3820, 010-3692-8420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2025년 예약 주문 받습니다 미래향,우리향 사라향,달코미 종사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신비향,수관향,설국향 궁천 5년생,홍미향(화분) 감귤묘목 품종 전량 보유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10-6677-5753, 064-733-7005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회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제주주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010-7305-781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750-2828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